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사성가	입당 (89)	봉헌 (511)	성체 (153)	파견 (91)
<p>제1독서 이사 35,1-6ㄴ..10</p> <p>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10ㄱㄴ(◎ 이사 35,4ㅂ 참조)</p> <p>◎ 주님, 저희를 구원하려 오소서.</p> <p>○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깊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p> <p>○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p> <p>○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p> <p>제2독서 야고 5,7-10</p> <p>복음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p> <p>◎ 알렐루야.</p> <p>○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p> <p>복음 마태 11,2-11</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탏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5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2/22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29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5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30	\$	\$2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21	손 아놀드/ 손 젬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1/4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 월 2 일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1 월 5 일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에페소서):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남가주 성당 대림 판공성사 일정

12/10(화) 바실성당, 12/12(목) 성삼 성당, 12/16(월) 성토마스 성당

12/17(화) 성바오로 성당, 12/18(수) 성마태오 성당,

12/19(목) 백삼위 성당, 12/20(금) 성아그네스 성당.

우리 성당에서는 이번 대림특강 초청강사 신부님은 없습니다.

우리 성당은 수요일 제외한 모든날 미사 30 분 전에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성탄 미사 일정

성탄 이브 미사 12/14(화) 저녁 10:00

성탄 미사: 12/25(수) 오전 9:30 – 영어, 한국어

오전 11:00 – 스페인어

말씀의 이삭

'빠야따스'에서 -2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중화관구)-

제가 필리핀 빠야따스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급식 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져 직접적인 째주림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은 가벼운 질병이 종종으로 옮아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의 의미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일회성이 아닌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삼십 명의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급식 할 수 있는 비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6개월 후에는 중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중단 할 때 중단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계시는 한 수녀님께서 급식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원 미사를 주선해 주셨고, 또 다른 수녀님께서는 몇몇 지인들에게 부탁해 작은 후원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30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급식을 돋기 시작 한 이 모임은, 현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빠야따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폐

루, 에티오피아 등지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돋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알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줄 때 보다 받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소낙비라면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가랑비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내리는 소나기는 뜨거운 대지를 순식간에 식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시뿐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특히나 한꺼번에 내리는 비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버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오랫동안 내리는 가랑비는 언제 더위를 식혀주는지도 모르게 더위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땅으로 스며들어 나무에도, 꽃에도, 풀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소낙비처럼 한꺼번에 와서 잠시 머물다 잊혀지는 것이라면,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가랑비에 옷 젓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새 우리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십이월, 적지만 내가 가진것을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서울주보 에서-